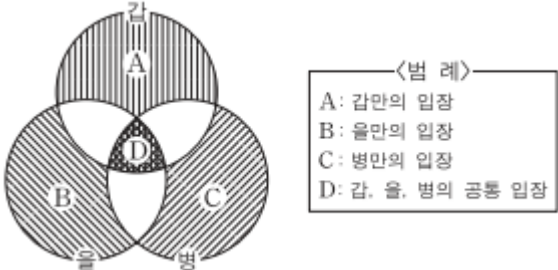


8.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음식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단순한 행위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잘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학적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식사에 관하여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 ①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도덕성이 구현될 수 있다.
- ③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생태계의 순환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 ⑤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개인적 취향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에의 경외를 살려고 하는 모든 존재에게 고양하는 것을 선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악으로 여긴다. 을: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병: 왜고 감수 능력은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은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나)	

<보 기>

- ㄱ. A: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명을 해칠 때는 도덕적 책임이 면제된다.
 ㄴ. B: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ㄷ. C: 동물의 고통 해방을 위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ㄹ. D: 이성적 능력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인자한 사람[仁者]은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내세워 준다. 내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仁)의 올바른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A)</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가로 열쇠] (A):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사회적 지위, 기회 등과 같은 금전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도록 돕는 일탈 행위. (B):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 ○○ [세로 열쇠] (A): 개념.								(A)				(B)								
		(A)																			
	(B)																				

- ① 항렬(行列)과 촌수(寸數)를 고려하여 정성을 다하는 관계이다.
- ② 효(孝)와 자애(慈愛)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이다.
- ③ 청소년기에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권면(勸勉)해 주는 관계이다.
- ④ 이성(異性)이 결합하여 분별 있게 서로 공경을 다하는 관계이다.
- ⑤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우애를 실천하는 관계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6. 해외 원조에 대한 노직, 싱어, 롤스의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갑은 노직, 을은 싱어, 병은 롤스이다.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조하며 원조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무로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에서 질서정연한 사회(입헌적 자유주의 사회, 적정 수준의 사회)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ㄱ. 노직은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자선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긍정의 대답을, 싱어와 롤스는 해외 원조 그 자체가 윤리적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싱어는 개인의 복지와 전 지구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의 질서를 확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ㄷ.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개인들에 대해 일정한 의무가 있으므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 인종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의 심각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다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ㄹ. 이 문제의 함정 선지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롤스는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뽕뽕 TIP]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국제 사회가 아니라, 국내 사회의 ‘분배 정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조의 의무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다.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는 국내의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국내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6학년도 수능 5번 문제에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라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되었다. 당시에 평가원은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낱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또한,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평가원이 기출에서 예고한 만큼 앞으로는 힌트 없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기출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변형되어 출제되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10. 노직의 정의론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 부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정답 찾기]

①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인 원칙은 분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를 규정하는 어떤 특성들을 선택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소유물의 이전에 있어서 이전시키는 사람의 권리보다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필히 재분배를 동반하게 되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② 노직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③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소유물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정당한 소유 권리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소유물을 획득하는 데서 생긴다. 자연물에 노동을 가하여 생산된 것과 자발적 교환, 증여,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은 올바른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노직은 재화의 원초적 취득이 공정하고 개인 간의 물물 교환과 같은 이전(transfer)이 공정하다면 이후에 역사적으로 내려와 불평등이 심화되었어도 그것은 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소유권리를 보호하고 개인들의 재화의 취득과 교환에 있어서 공정성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재화의 재분배에 관여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⑤ 노직은 상황의 정의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었고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한다. 즉,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노직의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를 역사적 원리라고 한다.

[뽀뽀 TIP] 노직의 ‘비정형적 역사적’ 정의의 원리

노직의 소유정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비정형적 역사적’ 정의의 원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다. 그는 분배기준 보다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과 방식 즉,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소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따라서 노직은 객관적인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면 그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몽몽 TIP] 노직이 생각하는 분배의 주체

노직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하였다.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조차 정의롭다고 보았다. 그는 분배의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았으며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강제 노동 착취로 간주하였다.